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4.13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전쟁발 인플레·소비위축 우려..미국증시 혼조 마감

- 미국증시 주요 지수 혼조 마감..주간으로는 4% 내외 상승
- 미국-이란 종전 협상 기다리며 관망세
- 치솟은 물가 지수-위축된 소비심리 지수

Summary

미국증시 2주 연속 상승

4월 10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현지시각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에 대한 관망 심리가 짙은 가운데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며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0.56% 하락한 47,916.57에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0.11% 하락한 6,816.89에 마감함. 나스닥 지수는 0.35%상승한 22,902.89에 거래를 마쳤으며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은 0.22% 하락 마감.

주간 기준 S&P500은 약 3.6%, 나스닥 지수는 약 4.7% 상승해 지난해 11월 이후 주간 상승률로는 최고를 기록. 다우 지수도 한 주간 3.0% 상승함.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1.33% 하락한 19.23을 기록.

(다우 -0.56%, 나스닥 +0.35%, S&P500 -0.11%, 러셀2000 -0.22%)

미국-이란 종전 협상 기다리며 관망세

이 날 시장은 파키스탄에서 예정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기다리며 대체로 관망세를 보임. 이스라엘의 레바논에 대한 폭격이 이어지는 등 휴전 중에도 불안한 상황이 지속됐고 협상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재정비 중”이라며 “함선에 지금까지 만들어진 최고의 무기를 싣고 있다”며 이란을 압박함. 또 “이란인들은 국제 수로를 활용해 세계를 갈취하는 것 외에는 카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고 쓰기도. JD밴스 미국 부통령은 협상단을 이끌고 파키스탄으로 향하는 길에 “이란이 우리를 가지고 놀려고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할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럼에도 “이번 협상을 긍정적으로 전망한다”고 말하기도.

협상 결렬, 그 후 다시 소용돌이

한편 현지시각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는 예정대로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협상이 이뤄짐. 다만 21시간의 릴레이 회의에도 양측은 이번 협상이 ‘노 딜’로 결렬됐다고 밝힘. 미국 대표단은 핵 포기에 대한 이란의 명시적 약속이 없었다며 추가 협상 없이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밝혔음.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어 “최고이자 최정인 제안을 제시했고 이란

이 수용하는지 지켜보겠다"며 이란에 미국 측 요구의 수용을 압박했으며 이 기자회견이 끝난 30분 뒤 전용기에 탑승해 미국으로 복귀함.

이란 역시 국영 매체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끝났다고 보도함.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항, 핵 문제에 합의하지 않았다"며 미국은 즉시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에 대해 봉쇄 조치를 시작하겠다고 밝힘. 이란의 원유 수출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읽힘.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어딘가에 기뢰가 있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해협 통행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세계를 향한 협박"이라며 "이란이 해협에 설치한 기뢰를 제거하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나 평화로운 선박에 발포하는 이란인은 누구든지 지옥으로 날려버리겠다"고 덧붙임.

이에 대해 이란 협상단을 이끈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겠다. 미국이 전쟁을 하려 한다면 우리도 싸울 것이고 논리를 가지고 나온다면 우리도 논리적으로 대하겠다"고 맞섬. 그는 "처음부터 미국을 신뢰하지 않았다. 77년간 쌓인 불신을 해소할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라고 강조.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IRGC)는 "모든 선박의 통행은 이란 군의 완전한 통제 아래 있다. 적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해협에서 치명적인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라며 미군이 해협에 접근할 경우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함.

미군은 동부시각 13일 오전(한국 시각 13일 오후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 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힘.

미국과 이란의 1차 종전 협상이 합의 없이 결렬된 이후 양측의 서로에 대한 수사적, 실질적 압박이 다시 심화되는 양상.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시 이후 호주 달러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어 해당 이슈는 주 초 아시아 증시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전쟁의 여파: 물가 상승과 소비자 심리 위축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대로 큰 폭 상승.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유가 등의 에너지 가격 급등을 반영한 결과로, 미 노동부는 3월 CPI가 1년 전에 비해 3.3% 상승했다고 밝힘. 이는 2024년 5월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이며 한 달 전에 비해서도 0.9% 상승해 2022년 6월 이후 약 4년만의 최대 상승 폭을 기록. 2월 기록했던 0.3%에 비해서는 상승 폭이 세 배 수준에 달함. 다만 기록적인 상승률임에도 이는 시장 예상에는 부합하는 수준. 근원 수치를 보면 3월 물가 상승의 원인이 보다 확실해지는데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2.6%, 전달 대비 0.2% 상승해 각각 2.7%, 0.3% 였던 시장 예상치를 하회. 노동부는 3월 수치에 대해 "3월 한 달 에너지 지수가 10.9% 급등해 3월 전체 물가 상승분의 거의 4분의 3을 차지했다"고 설명함. 에너지 지수의 월간 상승률은 지난 2005년 9월 이후 약 21년만에 최대. 세부적으로 휘발유 가격은 전달에 비해

21.2% 급등해 196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고 연료유도 30.7% 올라 2000년 2월 이후 월간 최대 상승률을 기록.

미국-이란 전쟁 발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이 반영된 첫 번째 물가 지표로 관심을 모았던 3월 CPI가 에너지 가격 급등을 여지없이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며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낮아짐.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이 유지된다고 해도 원유 생산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 압력은 단기적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

다만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3월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해 휘발유 가격의 일회성 상승으로 인한 일시적 흔들림으로 본다며 이 상황은 곧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한편 이 날 발표된 또 다른 지표도 전쟁의 여파를 반영함. 미국 소비자들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하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가 발표. 4월 잠정치는 47.6을 기록해 전달 53.3 대비 5.7포인트, 10.7% 하락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을 뿐 아니라 해당 통계 집계 이후 최저를 기록. 세부적으로 현재 경제 여건 지수는 3월 55.8에서 4월 50.1로 하락했고, 같은 기간 소비자 기대지수는 51.7에서 46.1로 떨어짐. 물가 우려가 특히 크게 확대됐는데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월 3.8%에서 4월 4.8%로 급등. 2025년 4월 이후 월간 상승 폭으로는 최대.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2%에서 3.4%로 올라 2025년 11월 이후 최고를 기록. 미시간대는 많은 소비자가 이란 전쟁을 경제 여건 악화의 주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령, 소득, 정당 등 모든 인구통계학적 집단에서 소비심리가 위축, 하락세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함.

특징종목

반도체 강세-소프트웨어 약세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1.41%)가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급증에 힘입어 올해 1분기 또 한 번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 TSMC는 1분기 매출이 1조 1,300억 대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 증가했다고 발표. 이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것이며 특히 3월 한 달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45.2% 급증. AI 투자 붐에 따른 반도체 수요 확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실적.

여기에 AI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코어위브(+10.87%)가 앤스로픽과의 클라우드 임대 다년 계약을 체결한 것도 AI 투자 붐과 맞물린 수혜 종목들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킴. '클로드' 개발사 앤스로픽은 코어위브의 AI 인프라를 임대 사용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앤스로픽은 코어위브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해 AI 모델 훈련과 추론 등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앤스로픽은 코어위브의 미국 내 데이터센터에 있는 엔비디아 칩에 대한 접근권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계약의 구체적인 재무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코어위브 CEO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계약이 수십억 달러 규모라고 밝힘. 코어위브는 전날에도 메타 플랫폼스(+0.23%)2032년까지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210억 달러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브로드컴(+4.69%), 엔비디아(+2.57%), AMD(+3.55%), 인텔(+1.07%), 웨스턴 디지털(+1.64%), 램 리서치(+1.89%).

다만 AI가 사이버 인프라를 위협하고 사이버 보안 기업의 사업 모델을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전일 앤스로픽의 '클로드 미토스'의 제한적 배포 소식 이후 확대돼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일제히 약세. 마이크로소프트(-0.59%), 팰로 앨토 네트웍스(-6.74%), 크라우드 스트라이크(-3.97%),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1.86%), 인튜이트(-2.97%), 세일스포스(-3.45%). 서비스나우(-7.58%)는 UBS가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하며 낙폭 확대. UBS는 서비스나우에 대해 AI 시대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던 기존의 시각을 철회했으며 그 확신이 약화됐다고 밝힘. 한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뛰어난 전쟁 수행 능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밝혀 장 중 낙폭은 축소했으나 반등까지는 가지 못함.

소비 심리 위축, 소매유통주 약세

이 날 발표된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4월치가 전달 수치 대비 10% 이상 급락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를 기록한 영향으로 소매 유통주는 약세. 월마트(-1.83%), 코스트코(-3.25%), 타겟(-1.73%), 달러 제너럴(-3.36%), 달러 트리(-2.97%).

반짝반짝 광통신

포토닉스 업체 코히어런트(+8.21%)가 강세. AI 서버용 광부품 수요 확대의 수혜주 중 하나로 평가되며 4월 들어 지속 상승 중. 루멘텀과 함께 엔비디아의 투자를 받고 있다는 점도 지난 GTC 이후 이들 종목의 매수 심리를 자극함. JP모건은 앞서 코히어런트의 목표가를 245달러에서 300달러로 상향하고 비중확대 의견 유지. 이 날 코히어런트 주가는 300달러를 돌파함.

역시 광통신 및 포토닉스 업체 루멘텀 홀딩스(+0.35%)도 상승. 최고 경영자(CEO)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제품 주문이 2027년치까지 이미 확보됐다고 밝힘. AI 데이터센터 증설과 광통신 수요 확대가 실적 기대를 끌어올려 역시 3월 말 이후 지속 우상향 중. 루멘텀은 다만 이 날 장 중 4% 이상 상승하다 차익 매물에 오름폭은 축소.

칼라일도 사모대출 환매요청 15% 상회

최근 사모대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 칼라일도 15%가 넘는 환매 요청을 받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 칼라일의 대표 사모대출 펀드인 '칼라일 택티컬 사모 신용펀드'는 올 1분기 투자자들에게 자산의 약 15.7%에 달하는 환매 요청을 받았으며 이는 칼라일이 설정한 분기별 환매 한도 5%의 세 배가 넘는 수준. 칼라일은 이 날 주주서한을 통해 환매 한도인 5%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거절할 것이라고 밝혀. 이 소식에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2.52%), 아레스 매니지먼트(-4.14%), 블루 아울 캐피털(-0.60%), 블랙스톤(-1.77%), 블랙록(-0.23%) 등 관련 이슈가 있었던 주요 운용사 주가

가 대체로 약세.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JP모건체이스 등 미 주요 대형은행들이 사모신용 펀드 운용사 등 금융사들의 신용위험에 연동된 신용부도스와프(CDS) 지수 'CDX 파이낸셜'을 다음주 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 이 지수에는 블랙스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아레스 매니지먼트 등 주요 사모신용 운용사 관련 기업들이 포함되며 포함된 기업들의 신용위험이 확대되거나 시장 심리가 부정적으로 변하면 가치가 상승하는 구조라고 설명.

이외 개별 특징주

뉴저지에 본사를 둔 여성 건강 전문 제약 회사 오가논(+27.79%) 주가 급등. 이코노믹 타임스에 따르면 인도의 선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즈가 오가논을 12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다만 선 파마 측은 해당 기사가 추측성 보도라며 언급을 거부함.

개인 신용 위험 평가와 의사 결정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페어 아이작(-13.99%)은 최근 독점 논란과 규제 리스크로 인해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 상태. 이 날 급락으로 52주 신저가 경신. 바클레이즈는 페어 아이작에 대해 기존 2,400달러였던 목표가를 1,950달러로 하향.

바클레이즈는 종합 여행 예약 프랫폼 부킹 홀딩스(-1.78%)의 목표주가도 기존 5,500달러에서 220달러로 조정. 이 목표가 조정은 이번주 반영되는 회사의 25-1 주식 분할 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바클레이즈는 부킹 홀딩스의 투자의견은 '비중 확대'로 유지.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미 국채 금리 상승

미 국채 금리는 모든 만기물에서 제한적으로 상승.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급등했지만 시장이 예상했던 범위 안에 머물렀음. 높은 물가 상승률은 금리 상승요인이 됐지만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리 상승 폭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 대한 경계심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

3월 소비자물가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1.6bp, 10년물 금리는 2.4bp 상승했고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국채 금리는 1.7bp 상승함.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올해 12월 말까지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을 75% 내외로 반영. 25bp 인하 베팅은 20% 초반 수준.

달러 가치 5거래일 연속 하락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가치는 5거래일 연속 하락. 달러는 강했지만 예상치에 부합한 물가지수에 안도하며 약세를 나타냄. 다만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앞두고 주고받은 강도 높은 발언들에 유가 상승과 맞물려 강세 압력을 받기도.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98.68로 전장 대비 0.13% 하락. 유로-달러 환율은 0.23% 상승했고 파운드-달러 환율도 0.24% 상승.

달러-원 환율은 야간거래에서 전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 거래 종가 1,482.50원 대비 1원 상승한 1,483.50원에 거래를 마침.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를 감안하면 1,484.20원을 기록.

국제유가 장 중 하락 반전

상품 시장에서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하루 앞두고 높아진 경계감에 상승하기도 했지만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을 반영해 하락 반전.

미국은 앞서 지난달 12일 글로벌 유가 급등세를 진정시키려는 차원에서 선적된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에 한해 제3자 구매를 30일동안 허용한 바 있다.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되지만 이를 한시적으로 풀어준 것인데 이 날 장 후반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 면제를 연장할 것이라는 소식이 로이터통신을 통해 전해짐. 이는 장 중 배럴당 99.50달러까지 올랐던 WTI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1.33% 하락한 배럴당 96.57달러에 마감함. 유럽 천연가스 시장의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선물 근월물은 5% 하락.

금과 은 등의 귀금속 가격은 대체로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했으며 구리 가격은 2%대 상승을 기록함.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